



의료기기 Analyst 신민수 alstn0527@kiwoom.com

뷰노(338220)

미국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업체 실적발표로 살펴보는 'DeepCARS'의 성공 가능성

◎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병원에 납품하는 OSI Systems의 FY2Q24 실적 발표

≫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는 헬스케어 사업부에게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밝힘

≫ FY2Q24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액 \$41.85M(YoY -3.8%), GAAP 영업이익 \$0.429M(YoY -69.4%), non-GAAP 영업이익 \$0.731M(YoY -80.5%) 기록

→ SaaS, 서비스 등 반복형 매출액 성장 / 심혈관계 제품 매출액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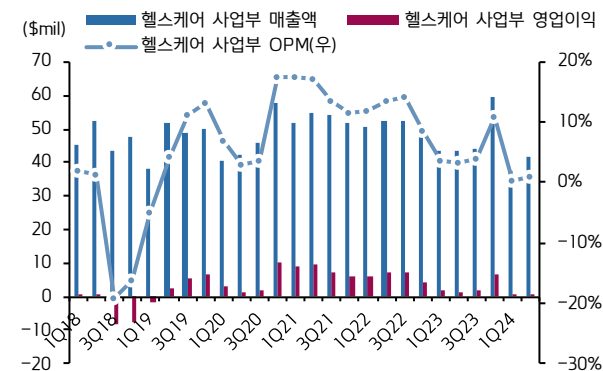
→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주문이 구체화되지 않아 매출액 감소

≫ 전체 예약 현황은 book-to-bill ratio(수주 대 출하 비율) 1.2 수준으로 고무적이라 언급

→ 수주(수요)가 출하(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하여 업황 자체가 둔화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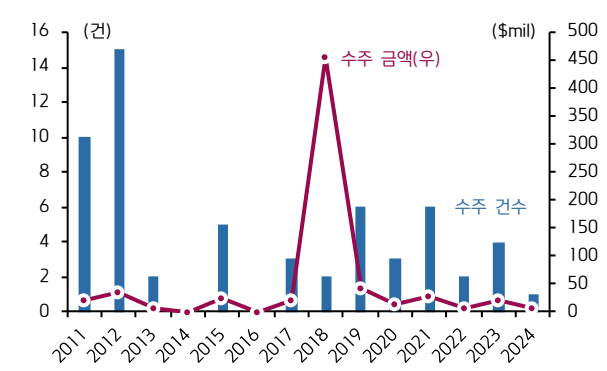
→ 실제로 '23년 10월, 11월, '24년 1월에 각각 \$4M, \$3M, \$5M 수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음

OSI Systems 헬스케어 사업부 분기별 실적



자료: OSI System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OSI Systems 헬스케어 사업부 수주 추이



자료: OSI Systems,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발표를 통해 얻을 수 있던 주요 포인트

≫ 전반적으로 “동사 제품의 성능이 몹시 뛰어나다”가 아니라 “동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병원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부족한 의료진들로 바쁜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느낌의 언급이 있었음

→ OSI Systems는 2005년부터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미국 여러 병원에 납품하며 업력을 유지해옴

→ 국내 의료 AI 업체들도 막연히 성능이 우수한 제품보다는 현장에서 제품을 사용할 의료진들의 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형식의 제품을 개발 및 출시하는 것이 시장에 침투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 OSI Systems의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과 비슷한 뷰노의 생체 신호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 'DeepCARS'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이러한 틈을 잘 파고드는 것이 중요함

>> 병동에서 심정지는 큰 문제이므로 발생 즉시 '코드 블루'를 발동하여 의료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함
 → 심폐소생술은 체력을 많이 요하므로 절대 혼자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없음
 → 보호자 설득, 생체 신호 체크, 제세동기 가동 등 인력이 여러 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사후 대처보다 사전에 미리 환자 상태를 확인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이 의료진들 입장에서 수월함

>> 미리 심정지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꾸릴 수도 있겠으나,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위험도가 높아질 때 알려주는 의료 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앞선 '의료진들의 수요 충족'에 충실

심정지 이상 징후 10가지

구분	내용
체온	35도 이하 또는 39도 이상
맥박	1분당 50회 이하 또는 100회 이상
호흡수	1분당 6회 이하 또는 20회 이상
통증	새로운 통증 발생
의식	새롭게 발생한 의식의 저하
산소포화도	90% 이하
혈압	수축기 혈압 90mmHg 이하 또는 평균 동맥압 60mmHg 이하
CAP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 3초 이상
소변량	2시간 연속 1시간당 30cc 이하 또는 4시간 동안 소변량 100cc 이하
젖산 수치	2mmol/L 이상

주) 붉은 글씨는 뷰노의 'DeepCARS'가 수집하는 활력 징후로, 해당 데이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

자료: 고려대학교의료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향후 뷰노의 포인트는 1) 업계 선두주자 OSI Systems의 Spacelabs Healthcare가 시장성을 얼마큼 확보해주는냐, 2) 미국 현지 파트너사를 어디로 선정하느냐, 3) 어느 시점에 미국 FDA 허가 및 보험 코드 발급이 되느냐로 좁혀볼 수 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26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